

## 『사랑하는 여인들』 다시 읽기: 생태학적 접근<sup>1)</sup>

엄 정 옥

(원광대학교)

Ohm Jeong-Ohk. (2005). Re-reading *Women in Love*: An ecological approac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1), 119-136.

This paper attempts to prove the possibility that *Women in Love* can be approached by ecological though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family of Lawrence's childhood, the environmental surroundings and Lawrence's viewpoint of nature to prove the possibility. The most urgent problem for us in the modern world is the ecological crisis due to the destructive aspect of modern civilization. This Lawrence's attitude toward the modern civilization is clearly reflected in *Women in Love*. Lawrence diagnoses the destructive aspects of modern civilization and the human relationship through Gerald, Gudrun, Hermione and Loerke who represent the industrial society and suggests the apocalyptic vision to the human being from the nature. Lawrence thinks that we must restore the animated power of life to revive the modern man who lost the vital power of life. Birkin and Ursula represent this thought of Lawrence and they accomplish the idealistic human relationship based upon the true love and the real life. They do not have the posture of the binomial contrast that separates the human being from the nature. This posture of the binomial brings to one of the causes of the present ecological crisis. As a result, we can say that *Women in Love* is the novel that belongs to the category of literary ecology. And we can regard that Lawrence previously presented the paradigm that ecologist advocates.

[ecological approach/industrialism/primitive consciousness,  
생태학적 접근/산업주의/원초의식]

---

1) 이 논문은 2004년도 원광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교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로렌스(D.H.Lawrence)의 『사랑하는 여인들』(*Women in Love*)을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로렌스 어린 시절의 가정과 주위 환경 그리고 로렌스의 자연에 대한 인식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작가로서의 로렌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그의 가정이었다. 상반된 속성의 소유자인 부모의 불화에서 야기되는 긴장과 갈등이 연속되는 가정생활은 로렌스 자신과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부담을 준 것 같다. 로렌스에게는 이러한 가정 분위기가 그의 예술에 기본적인 문제를 제시해주어 양극성(polarity)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모의 존재는 그에게 상반되는 가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로렌스의 소설에서 대조의 양식 즉 양극성의 탐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원론(dualism)을 알아야 한다. 로렌스의 이원론은 남성원리(male principle)와 여성원리(female principle)로 이루어지는데 남성원리란 로렌스가 일생동안 반대해서 싸워온 것들 즉 추상이나 이상주의 등 일반적으로 그가 지적의식(mental consciousness)이라고 부른 것이며 여성원리란 그가 강력하게 신봉한 남근 의식(phallic consciousness)이다.

로렌스의 자서전적인 소설인 『아들과 연인』(*Sons and Lovers*)에서 그의 이원론의 원리에 의하면 월터 모렐(Walter Morel)은 그의 아버지가 모델로서 어둠(darkness) 즉 여성원리에 속하며 모렐 부인(Mrs. Morel)은 그의 어머니가 모델로서 밝음(light) 즉 남성원리에 속한다. 『아들과 연인』에서 월터 모렐은 야비하고 거칠은 사람으로 국외자(outsider)가 된다. 폴 모렐(Paul Morel)은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천박하고 야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연히 어머니와 한 편이 되어 아버지에게 대항한다.

『아들과 연인』에서 폴과 월터의 관계는 로렌스와 그의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폴이 아버지의 추레한 모습과 천박한 행동에 대하여 몹시 증오하고 있는데 이는 로렌스 어린 시절의 그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로렌스의 태도는 그의 아버지와 대면할 기회가 있을 때 로렌스에게 심한 전율과 공포를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증오했다.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나는 아버지가 나를 만졌을 때 무서움으로 몸이 떨렸다”(Collected Letters, p. 69)라고 했을 정도로 로렌스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있었다. 그러나 로렌스가 그의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동질적 가치를 부여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포드(G. H. Ford)가 “로렌스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단계로부터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p.

42)라고 말한 것처럼 로렌스 자신도 차츰 그의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아버지와 동질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1914년에 로렌스가 그의 아버지처럼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꽤 시사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로렌스가 작가로서 활동했던 기간 동안 그가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가치들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대표되는 여성원리에 연관되어 있다. 로렌스의 여성원리가 남근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고 생태주의에서는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로렌스와 그의 작품을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로렌스의 가정과 더불어 주위 환경으로서의 광산이 로렌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그의 마음속에 흡수되어 변형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로렌스 자신이 광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20여년 동안 광산촌에서 거주했고 그의 아버지가 광부였다는 사실은 로렌스에게 심리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영향은 탄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둠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광부였던 그의 아버지와 연결이 된다.

로렌스 아버지 시대의 광산들은 아직 기계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육체적 노동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본능적인 행동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광부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어두운 채굴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

로렌스의 작품에서 광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많은 소설들에서 광산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 광부와 탄광 경영주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렌스의 소설에서 탄광의 존재는 단순한 자연적인 배경 이상의 것이다. 로렌스에게 광산은 본능적인 삶이 영위되는 암흑의 세계였다. 『아들과 연인』의 월터 모델에 의하여 구현되어진 것처럼 본능과 직관에 의한 자연적인 삶을 영위하던 광부들이 기계문명의 발달에 의하여 광산이 기계화됨으로써 그들의 자연적인 삶을 잃고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 “살아있어도 죽은”(living dead)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로렌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분노가 로렌스의 반 산업주의 사상으로 이어졌으며 『사랑하는 여인들』에서는 현대 산업사회를 대표하며 광산주인 제럴드 크리치(Gerald Critch)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기계문명과 자연 파괴에 대항하는 로렌스의 반 산업주의는 자연과의 조화와 생명력을 중시하는 생태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다.

생태주의와 연관시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로렌스의 자연에 대한 천부적인 인식 능력이다. 로렌스는 도로레스 라차펠(Dolores Lachapel)이 “인간이 보아야 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로렌스의 믿을 수 없는 능력은 끊임없이 그의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p. 20)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나무, 꽃, 부서지는 파도와 달의 신비로움을 알되 보통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몸소 체험한 결과로써 아는 듯 하였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초인적인 감수성을 타고난 로렌스는 인간 의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 건너편의 아득한 암흑의 경지를 느낄 수 있었다. 주위 환경에 대한 로렌스의 이러한 감수성은 로렌스로 하여금 그의 주위에서의 자연 파괴를 강하게 느끼도록 해주었다. 로렌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고향 노팅엄(Nottingham)에서 탄광에서의 석탄 채굴에 의하여 자연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직접 목격하였다. “백년 전에 회사의 창립자가 나의 고향을 추악하게 만들었다”(Phoenix, p. 140)라고 로렌스가 그의 고향에 대해서 회상했듯이 산업화에 의한 자연 파괴의 심각함이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듯 하다. 그러나 로렌스와는 달리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연 파괴를 발전의 한 부분으로써 당연시하고 있었다(Lachapelle, 1996, p. 45).

위와 같은 결과들은 로렌스와 그의 『사랑하는 여인들』을 생태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 II. 본론

『사랑하는 여인들』은 현대 기계문명에 예속되어 지배와 종속의 파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제럴드(Gerald)와 구드룬(Gudrun) 그리고 현대 기계문명에 반발하고 창조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며 이상적인 남녀 관계를 성취하려는 버킨(Birkin)과 어슬러(Ursula) 이들 두 쌍의 남녀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들』의 지리적 배경은 『무지개』(*The Rainbow*)와 달리 시골 생활의 소박성을 찾아 볼수 없는 광산촌 벨도버(Beldover)이다. 산업화에 의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진 벨도버라는 탄광촌의 추악한 모습은 구드룬을 통해서 “미드랜드(Midlands)에 있는 조그마한 탄광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추악함에 비참할 정도로 몸이 오그라들었다”(p. 12)라고 묘사되어 있다. 벨도버는 산업사회의 병폐를 고발하는데 보다 적절한 배경이 되어 있다. 로렌스는 이러한 지리적 배경에다 산업화의 주역이자 광산주의 2세인 제럴드를 등장시켜 제럴드와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기적이고 잔인한 성격과 지배적 의지를 지니고 있는 제럴드가 그와 동질적인 구드룬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들』에는 이들이 내적인 갈등과 투쟁을 거쳐 성공적인 관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떤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제럴드에 의해서 구현되는 반 산업주의 사상과 결부되어 표출되어 있다.

구드런이 연인이 될 제럴드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토텐(totem)이 늑대라고 생각한다. 제럴드의 토텐이 늑대라고 말한 것은 제럴드가 북방신화(Nordic myth) 창조편에 등장하는 늑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준다. 북방신화에서 늑대는 파괴적인 힘과 자연적인 질서에 대한 파괴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폴(William. F. Fall)은 “늑대의 이미지는 제럴드 그리고 북방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제럴드 외모의 특이함과 북방의 하얗고 번쩍거리는 특성에 의하여 제럴드와 북방이 연결되어져 있다”(p. 272)라고 제럴드를 늑대와 연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북방에 관련시킴으로써 제럴드가 북반구에 거주하는 북방 인종의 후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방 인종은 백인종을 대표하는 인종이고 그들의 뒤에는 얼음과 눈으로 덮인 북극이 있기에 북방 인종으로 암시되어진 제럴드는 얼음과 같이 차가우며 파괴적인 백인종과 그들의 문명을 상징하고 있다. 니븐(Alastair Niven)도 “로렌스가 제럴드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은 현대 서구 산업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계적 의지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Niven, p. 104). 버킨도 제럴드에 대하여 “그는 파괴적인 서리의 신비 속에서 완성된 북방에서 온 놀라운 하얀 악마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다”(p. 287)라고 제럴드의 파괴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럴드는 질서와 지배에 대한 욕망이 강한데 그의 이러한 모습은 열차가 건널목을 지나는 동안 겁에 질려 도망치려는 아랍산 암말을 역지로 제지시키느라고 피를 흘리게 하는 장면에서 잘 부각되어 있다. 이 장면은 힘에의 의지가 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써 어슬러는 제럴드의 잔인성과 자신의 의지의 강요에 의한 타자의 정복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그의 지배 의지를 느끼고 경악한다. 그러나 제럴드는 말의 혹사에 대한 어슬러의 항의에 대해서 말은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있으며 이것이 자연적인 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Burns, 1980, p. 77). 제럴드의 말을 다루는 태도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제럴드의 이러한 태도는 김옥동이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고 자연을 하찮게 여기는 휴머니즘이 그 동안 생태 질서에 크나큰 위협이 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옥동, p. 36)라고 말한 것처럼 반 생태적인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열차가 지나가자 구드런은 뛰어나가 차단기를 올리면서 제럴드에게 마녀와 같은 기묘한 소리로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p. 125)라고 외친다. 구드런은 어슬러와는 반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하는 제럴드의 잔인성과 능력에 의해서 매혹되어지는데 구드런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녀가 제럴드와 동질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속성의 구드런과 제럴드의 동질성은 토끼를 다루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반영된다. 구드런이 제럴드의 누이동생인 위니 프레드(Winifred)에게 그림 공부를 도와주려고 크리치가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은 토끼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토끼장

으로 간다. 구드런이 토끼를 토끼장에서 끌어내려 하자 토끼는 맹렬하게 저항하면서 구드런의 팔을 핏대한다. 구드런이 버둥거리는 토끼를 팔로 누르려할 때 제럴드가 그들 앞에 나타나 토끼를 인계받는다. 사나워진 토끼가 발길질을 하며 제럴드의 손목을 핏대하자 하얀 칼날 같은 노여움이 제럴드에게 일어나 토끼의 목덜미를 내리 눌렀다. 그러자 토끼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몸서리쳐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폭력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하려는 두 사람은 그들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잔인성과 파괴성을 확인하게 된다.

토끼에 대한 에피소드에서 제럴드와 구드런의 파괴적인 탐욕의 이미지가 피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피의 이미지는 인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 로렌스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의 잔혹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도입하곤 하는데 토끼의 에피소드를 통하여 나타나는 제럴드의 존재는 인간의 원초적 차원의 내적 존재를 무시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자연 파괴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제럴드와 구드런은 그들의 동질성에 의해서 동맹이 맺어지는데 그들의 동맹은 무엇이든지 지배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와 비인간적인 냉혹성에 의해서 엄격하게 된다. 그러나 제럴드와 구드런의 사랑은 독약 같은 것이어서 그들은 서서히 파멸의 길로 이르게 된다.

제럴드는 그의 아버지 토마스 크리치(Thomas Critch)가 운영하던 광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가 광산의 책임을 맡고부터 광산의 면모는 일신된다. 토마스가 기독교적인 이상주의에 의해서 광산을 운영했던 것과는 달리 제럴드는 철저한 현실주의에 의해서 광산을 운영했던 것이다. 제럴드는 기존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이 질서에 의해서 광산은 그 자신의 기계적 의지가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야 했다(Burns 1980, p. 77). 제럴드가 탄광을 인수했을 때는 채산성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때여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새로운 채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한 자연 조건과의 투쟁에 있어서 그가 철교에서 말에게 강요했던 것과 동일한 의지를 작용시켜서 물질을 자기 목적에 종속시킨다. “물질을 자기 자신의 목적에 종속시키는 것이 인간의 의지였기 때문에 제럴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자연 조건과의 투쟁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이었다”(p. 216). 자연과의 투쟁에서 제럴드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완벽하게 완수한다는 것은 제럴드가 자연을 완전하게 정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럴드에게 자연 정복의 주요 수단은 기계이고 그의 기업 의욕을 고조시켜주는 것은 능률의 극대화라는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기술적 메카니즘이다.

제럴드가 지니고 있는 정복과 소유에 대한 개념은 자연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럴드는 인간을 기계의 일부로 종속시

키는 비인간화를 추진하게 되어 개인의 고통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그에게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순수한 도구성이었다. 제럴드에게는 칼이 잘 드느냐 안드느냐의 문제와 같은 기능성을 가진 도구로써만 광부들이 존재할 뿐이다. 제럴드에게 광부들은 자신과 같은 계급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이다. 광부들은 채탄 기계를 가동시키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합리적인 몫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제럴드는 생각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제럴드에게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가 요구되고,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과 같은 일사불란한 조직 원리와 경영 원리의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이와 같은 기계주의 속에서의 비인간적인 원칙의 적용은 필연적인 결과로 인간의 비인간화와 비정성을 초래하게 되었고 광부들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었다. 광부들을 비인간적인 기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는 제럴드와 그를 최고 사제로 받들고 기계에 종속되는 것에 만족하는 광부들에게서 현대문명이 야기시킨 병든 인간의 정신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제럴드는 탄광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보려 했던 것이다. 그의 삶의 목표는 인간 사회를 하나의 성능 좋은 생산 기계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물질화된 세계 속에서 인간은 안이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기계의 노예가 되어 일종의 생산도구로 전락되고 만다.

제럴드는 현대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로서 기계와 같은 냉정한 수법으로 광부들을 그에게 복종토록 만들었다. 제럴드와 구드룬 그리고 광부들도 동질적이어서 그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에 있다. 제럴드의 파괴성은 좌절감과 공허감을 동반하여 그를 파멸하게 한다. 이러한 제럴드의 잔인성은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유모에게 의해서 처음으로 암시된다. 제럴드의 어렸을 때 유모였던 커크부인(Mrs. Kurk)는 “악마가 있다면, 제럴드가 바로 악마였어요. 그는 태어나서 6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악마적인 소질이 있었어요”(p. 239)라고 말한다. 제럴드의 어린 시절까지 소급하지 않더라도 아랍 말과 토끼를 다루는 에피소드에서 무엇이든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의 맹목성과 비인간적인 잔인성이 이미 노출되었다.

제럴드는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지만 정신의 요구에는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럴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구드룬과의 관계에서처럼 제럴드가 성을 기계적인 도구의 일종으로만 생각하여 관능에만 탐닉한 것은 그가 광산주로서 광부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종의 생산도구로 취급한 태도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럴드가 인간의 영혼을 돌보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제럴드와 구드룬의 사랑은 버킨이 주장하는 상호간의 독립된 자아의 확장이 아니라, 각자의 자아 포기를 통한 사랑으로써 그들은 육체적인 관능에만 탐닉하고 싶은

욕망을 서로 느낀다. 제럴드와 구드런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적 행위나 욕망도 의지에 의해서 통제 받는다. 이와 같이 정신과 육체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만 결합되는 제럴드와 구드런의 사랑은 파멸을 맞지 않을 수 없다.

제럴드와 구드런의 갈등은 무대를 옮겨 구라파에서 이어진다. 버킨과 어슬러의 제안으로 제럴드와 구드런은 알프스에 갔다. 이곳에서도 제럴드와 구드런의 갈등과 투쟁은 계속된다. 그들의 투쟁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정복하여 소유함으로써 끝을 맺게 되는 유형이었다. 자기의 의지를 맹목적으로 구사하려고 하는 제럴드는 구드런에게 “인간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이었으며 일종의 탐욕스런 생물이었다”(p. 465). 제럴드에게는 사랑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으며 진실된 사랑을 통해서 그의 삶을 완수할 수 있다는 지각을 하지 못한 채 제럴드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일 뿐이었다.

제럴드와의 사랑에 절망을 느낀 구드런은 여행지에서 만난 로엘케(Loerke)라는 조각가에게 마음이 끌린다. 로엘케는 예술가이지만 순수하지 못하고 천박하며 예술 활동도 일종의 기계적인 움직임이라고 간주한다. 로엘케는 현대 기계문명 사회의 주요한 요소인 기능과 능률이 창조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변태적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로렌스가 당대의 사회적 타락이나 도덕적 붕괴를 묘사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창조한 인물 중의 하나이다. 버킨도 로엘케를 “그는 어둠의 음탕한 악마이다”(p. 481)라고 했다. “로엘케는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악한으로 등장하는 록키(Loki)와 닮았다”(Moore, p. 127)라고 무어(Harry T. Moore)는 말했으며 니븐도 무어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Niven, p. 110).

로엘케는 기계주의 속에서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퇴폐적 예술가였다. 그는 사회의 밑바닥으로부터 입신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이상을 외면하는 현실주의자로서, 인생과 예술은 별개의 것이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예술관의 소유자다. 로엘케의 예술관에 대하여 구드런은 동조했으나 어슬러는 로엘케가 예술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분리하는 것은 작가 자신의 추악한 현실의 모습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제럴드는 구드런에게 낮에는 무척 남성다운데 밤에는 밤새도록 보채는 어린 아이처럼 보인다. 제럴드는 구드런에게 모성애적 구원을 갈망했던 것이다. 구드런은 이러한 제럴드를 경멸하게 되고 그녀의 마음을 단아버린다. 또한 제럴드를 생각할 때는 그와 도구 그리고 기계와도 연결시켜서 생각한다. 이 때 제럴드는 위대한 기계의 완전한 부품이 되는 것이다. 그에게는 기계와 이를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 이런 거대한 조직의 정상에 있는 제럴드를 생각하면 구드런은 답답해지고 쿤테로워진다.



진실한 사랑을 통해 인생이 좀 더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한 제럴드는 일만이 지상의 목표였던 것이다. 이미 고찰한 것처럼 제럴드는 생명감이 상실된 기계의 화신이니까 제럴드와의 결혼생활은 기계적인 권태로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구드런은 생각한다. 제럴드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구드런은 제럴드와 로엘케 앞에서 자기를 크리치 부인(Mrs. Critch)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한다(p. 505). 구드런이 제럴드와의 결혼을 부인했기 때문에 로엘케는 제럴드에 대하여 승리감을 느낀다(p. 59). 구드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제럴드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다. 이와 같은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 그저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거나, 한쪽의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하여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고 느낀 제럴드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드런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어버리거나 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제럴드는 썰매를 타고 있는 구드런과 로엘케를 만났을 때 로엘케를 때려눕힌 다음 구드런의 목을 조르다가 로엘케가 “제발 그만둬”(p. 531)라고 말하자 제럴드의 마음에 경멸과 혐오의 감정이 타올라 구드런의 목을 놓고 눈 속을 정처 없이 헤매다가 동사하게 된다.

제럴드가 눈 속에서 동사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눈의 이미지와 제럴드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인들』의 여러 곳에서 제럴드와 눈, 서리, 얼음 등이 연계되어 있다. 제럴드는 얼음처럼 차가워 생명력을 상실한 백인종을 대표하고 있으며 모든 농작물의 생명을 정지시키는 서리처럼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북방에서 온 하얀 악마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럴드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티롤(Tyrol)에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눈, 서리, 얼음 등이 제럴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버킨이 제럴드에 대하여 “그런데 그는 이 지식 속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한기, 곧 서리와 같은 지식의 과정 속에서 죽어가도록 운명지워져 있는 것인가? 그는 이 우주가 순백과 눈 속으로 분해되는 것을 알리는 사자인가, 그 전조인가”(p. 287)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럴드는 백인종의 종말을 알리는 사자(messenger)였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들』에서 눈, 서리, 얼음 등이 제럴드와 동일시되고 이것들은 파괴적이고 생명력을 상실한 백인종, 백인 사회, 백인 문명을 상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눈, 서리, 얼음 등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달빛처럼 하얀 색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 불모와 죽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스(F. R. Leavis)도 『사랑하는 여인들』에서 “눈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Leavis, p. 202). 리비스가 지적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들』에서 눈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럴드가 눈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원초적 생명력을 잃고 마치 기계의 한 부품처럼 되어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결여된 불모의 백인종과 서구 문명의 몰락과 파멸을 예고하는 로렌스의 묵시록적 비전이 투

영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럴드의 비극은 생명의 온기를 잃고 기계처럼 냉혹하게 되어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룩하지 못한 현대의 많은 제럴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하는 여인들』에서 로렌스가 제시하는 묵시록적 비전은 백인종 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것이다.

제럴드의 비극을 초래하게 한 것은 서구의 현대 산업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산업 혁명에 의한 기계의 등장으로 서구에서는 산업의 기술적 기초가 바뀌어 조그마한 수공업적 작업장이 기계설비에 의한 자본주의적 규모의 큰 공장으로 전환됨으로써 빠르게 서구는 산업화 되었다. “서양이 동양보다 과학적 기술에 일찍 눈을 뜨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자연을 지배와 정복, 더 나아가서는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자연을 오직 수단과 방법으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자연과 환경은 어쩔 수 없이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김옥동, 1998, p. 35). 로렌스가 작가로서 활동했던 20세기 초는 현재와 같은 생태 위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생태주의 사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렌스의 자연관에 의하여 형성된 반 산업주의 사상이 현대 산업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제럴드를 통하여 표출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인들』의 구성을 단순화시켜 본다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한 쌍과 죽음을 향하여 치달는 다른 한 쌍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버킨과 어슬러가 추구하는 창조적 삶에의 길은 생명의 강이며 제럴드와 구드룬이 빠져 있는 허무의 심연은 부식의 강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들』에서 버킨과 어슬러의 본격적인 내적 갈등이 전개되기 전에 로렌스는 그 서곡으로 허미온(Hermione)이라는 철저하게 남성원리에 속하는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다. 허미온은 그녀가 거주하는 미드랜드라는 지방에서 상당히 알려진 여자였는데 집안도 좋아서 오빠는 국회의원이었고 아버지는 준 남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완고하고 구식인데 반해서 허미온은 신세대 여성으로서 지성적이었고 정신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외면적인 의연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공허했으며 의식과잉으로 괴로워하는 여자였다. 허미온은 사회활동, 사상적인 활동 그리고 예술적인 활동에서도 최고 첨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장을 섰으며 문화의 유지자요 매체였다. 그러나 허미온은 외면적으로 볼 때 대단한 지식인이지만 내면적으로 내적 자아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결핍을 메어줄 어떤 사람을 기대했으며 이것을 버킨에게서 구했다. 허미온은 버킨이 곁에 있으면 충족되어 완전해지는 것 같았으나 그가 없을 때는 바다 위에 등지를 짓는 것처럼 튼튼한 자아가 깊은 심연 속으로 내동댕이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따라서 허미온은 버킨을 강렬하게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완벽하게 소유하려고 한다. 허미온은

항상 그녀의 의지를 버킨에게 강요하여 그를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버킨은 그녀에 대하여 깊은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다. 버킨은 자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허미온을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허미온이 버킨을 끌어 들이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만큼 더 버킨은 허미온을 밀어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미온이 구사하는 의지의 맹목성이었다. 융단(carpeting)이라는 장에서 허미온이 제럴드의 말을 다루는 태도에 동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들의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의지는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다만 우리들이 의지를 적절하고 지성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p. 155). 인간의 의지는 어떤 것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허미온의 주장은 말을 자기 의지대로 다루려는 제럴드의 태도와 유사하다. 허미온과 제럴드의 유사성은 리비스도 지적한 바 있다(p. 178). 허미온의 맹목적 의지의 구사는 그녀로 하여금 자의식으로 충만되게 하여 모든 것을 알고 하는 태도가 형성된다. 버킨은 허미온에게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입니다—당신에게는 오직 그것 밖에, 그 지식 밖에 없어요”(p. 43)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은 허미온의 의식 상태는 그녀의 자발성과 자연성을 파괴시킴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활기와 생명력이 고갈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동양화에 나오는 거위를 그리고 있는 버킨을 본 허미온은 버킨이 거위를 그리는 이유를 알고자 한다. 허미온은 버킨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아야만 했던 것이다. 허미온의 삶에 대한 추구는 소유욕에서 기인되었으며 그녀의 소유욕은 그녀의 자연성을 파괴시켜 허미온으로 하여금 생명감이 상실된 인간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버킨은 허미온에게 “당신에게는 관능적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의지만이, 의식의 자만심만이, 힘에 대한 갈망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당신의 알고자 하는 욕망에서 유래된 것입니다”(p. 46)라고 말하는데 허미온의 정열과 본능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스피카(Mark Spilka)가 “많은 로렌스의 인물들처럼 허미온은 존재의 한 두가지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의지와 정신과 지성이 궁극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위한 단일한 정열로 이 여성 안에서 융합되어져 있다”(p. 133)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그녀의 정열과 본능은 이성적인 두뇌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것이며 그녀는 의지와 힘 그리고 지배와 소유에 대한 가치만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여성이다. 버킨은 “당신은 생명을 말할하려는 진짜 악마입니다”(p. 47)라고 허미온을 힐난한다. 허미온은 인간의 육체적 정열로 뜨거워지지 못하고 지적이고 정신적인 사랑만 추구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허미온이 그녀의 삶에서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그녀의 소유욕과 자의식 과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인 자아에 반해서 사회적인 자아에 충실하려는 허미온은 자연히 생명감을 잃고 파괴적일 수 밖에 없다. 버킨을 소유하려는 허미온의 의지는 자기 파멸의 과정으로 이행하게 되어 파괴적으로 된다. 버킨과 허미온의 부자연스런 관계는 허미온이 버킨에게 문진으로 쓰이는 청동색 유리구슬을 던짐으로써 결렬하게 된다. 유리구슬 세례를 받은 버킨은 곧장 숲으로 달려간다(p. 119). 허미온과의 파괴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숲에서 나체로 자연과의 교감을 이룩함으로써 버킨은 오래되고 안정된 자아(old stable ego)를 버리고 다른 자아(another ego)가 되어 자연과 동소체적인 관계를 이룩하게 된다. 자연의 어떤 요소가 그의 피 속으로 스며들어간 것을 느낌으로써 버킨은 정신적으로 재생하게 된다. 버킨의 정신적인 재생은 어슐러와의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써 충분하게 된다. 이 장면을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버킨이 나체로 숲에서 나뉘굴음으로써 자연과 동소체적 관계를 이룩했다는 것은 버킨이 인간과 자연의 이항대립적 관계 즉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서구의 인간 중심주의와 휴머니즘을 뛰어넘어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킨은 장학사였는데 몸은 야위었고 안색은 창백했다. 그의 성격은 빈틈이 없었으며 사람들과 고립되어 있었다. 버킨은 강력한 개성의 소유자였으나 사람들이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행동했다. 현대인들의 과도한 지성편중에 의해서 잃어버린 원초적 생명력을 갈망했던 버킨은 정신적인 면에서 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버킨의 육체적인 매력은 생명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었다.

버킨은 라체펠이 “미래의 원시인”(xi-x)이라고 부른 인물의 원형중의 한 사람이다. 라차펠의 미래의 원시인이란 로렌스가 그의 작품에서 역동적인 인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한 인물 즉 현대를 살면서도 원초 의식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허미온과 결별한 후 버킨은 교사였던 어슐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그들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처럼 밝은 햇빛과 종달새 울음으로 가득 차서 활기에 찬 모습으로 묘사된다. 허미온의 지나친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경도에 혐오감을 느낀 버킨이 어슐러의 풍부한 관능, 건강한 감성, 정서적 평온함과 친밀감, 부지불식간에 만개할 것 같은 부드러운 여성다움, 그리고 초자연적이고 고고한 개성미에 이끌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버킨은 어슐러의 풍부한 관능성과 여성다움 속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창조적 유형의 어두운 관능을 통한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그녀와 함께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버킨은 어슬러와 양극을 이루며 균형이 유지되기를 바랐지만 버킨에게는 여자란 언제나 무섭고 움켜쥐는 존재로 보였다. 그는 여자란 사랑에 있어서 탐욕스런 소유욕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지배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여성이 낳았기 때문에 여성의 소유이며 당연히 여성은 거모가 되고 여성은 남성에게 영혼, 육체, 성 등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 남성을 정복하고 지배하려 한다고 버킨은 생각했다. 어슬러는 버킨을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데 이러한 그녀의 생각은 버킨으로 하여금 분노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고조된다. 버킨은 어슬러와의 사랑을 강렬하게 원했지만 어슬러가 원하는 사랑이란 “무서운 속박이며 일종의 강제 징병”(p. 223)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 버킨이 어슬러와의 관계에서 추구했던 양극성의 추구가 실패함으로써 버킨은 심한 좌절감에 빠지는데 이러한 그의 정신적인 고투가 달빛(Moony)이라는 장에서 그가 시벨(Cybele)을 저주하고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에 미친 듯이 돌을 던지는 행동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진다(p. 278). 버킨이 어슬러와 진정한 의미에서 결합되기 위해서는 그녀에게서 거모와 같은 태도를 없애버려야 하는데 이와 같은 버킨의 염원이 시벨을 저주하고 달 그림자에 돌을 던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달은 거모같은 어슬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킨과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슬러가 소유욕과 자아의식을 버려야 하는데 하얀 죽음의 미소를 띠고 있는 달처럼 이러한 상태가 그녀의 생명력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어슬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버킨을 소유하는 것, 완전무결하게 그녀의 소유로 하는 것이었다. 남녀의 사랑에서 별과 별 사이 같은 평형을 염원했던 버킨에게는 어슬러의 거모같은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버킨은 아프리카 조각상(Africa Statue)과 제럴드에 대한 상념에 빠지는데 이들 모두가 파괴적 유형의 관능 추구에 의하여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에 반대되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게 된다. 개인의 영혼은 사랑이나 결합에의 욕망보다 우선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영원한 결합을 수락할 의무와 사랑에의 속박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 자신의 단일성과 독립성은 상실됨이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킨은 개인적인 단일성을 사랑과 양보를 통해 균형있게 유지해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이와 같은 버킨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종래의 주장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한 것으로써 “사랑을 초월한 비개성적 자아의 조화를 추구한 것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의 속박과 의무라는 명예를 인정하는 쪽으로 한 단계를 후퇴하면서도 끝까지 자아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Spilka, p. 127). 버킨의 사랑에 대한 수정된 개념은 어슬러의 주

장과 자신의 주장을 조화 내지 타협한 결과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미코 (Miko)도 새로이 변형된 버킨의 주장은 “자기 자신의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열망에 어슬러의 낭만적이고 현세적인 사랑의 개념을 접목시킨 결과로 보고 있다”(Miko, 1971, p. 270).

이와 같이 버킨은 사랑에 대한 변형된 생각을 가지고 어슬러에게 청혼을 하나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슬러는 버킨을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아를 버리고 전적으로 그녀만을 사랑해줄 것을 바란다. 그러나 버킨은 끝까지 자아를 버리지 않으려 했다. 어슬러나 버킨의 이와 같은 태도가 그들이 겪게되는 갈등의 핵심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버킨과 어슬러는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간다. 버킨이 허미온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찬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자 어슬러는 정신적으로는 허미온을 사랑하면서 육체적으로만 자기를 이용하려 한다고 버킨을 비난한다. 어슬러와 버킨은 격렬한 언쟁을 한 후에 어슬러는 버킨이 선물로 준 반지를 되돌려 주고 버킨 곁을 떠나간다. 그러나 그들의 언쟁은 다정한 어떤 대화보다도 극적으로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슬러는 벨 히더 (bell-heather) 꽃을 버킨에 대한 선물로 가지고 되돌아온다. 어슬러의 나무나 꽃에 대한 태도가 그녀의 감정이나 기분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슬러가 버킨과 언쟁을 할 때 그녀는 스피들베리(spindleberry)를 꺾거나 잡아당겼으며 그녀가 버킨에게 되돌아올 때는 벨히더 꽃을 버킨에게 바치는 선물로써 가지고 왔던 것이다. 어슬러가 버킨에게 꽃을 선물했다는 것은 그녀가 자연과 동소체적 관계를 이룩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어슬러는 오래되고 안정된 자아를 버리고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자아를 견지하면서 별과 별사이 같은 평형의 상태를 이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어슬러에게 버킨은 신비적인 인물로 보이기 시작한다. 어슬러는 버킨에게서 창세기 태초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환영을 본다.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의 버킨을 어슬러는 발견했고 버킨은 인간의 딸들 가운데서 첫째로 빛나는 한 사람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제 어슬러의 얼굴은 황금빛이 눈부시게 번쩍었다. 정열의 불꽃이 살그머니 버킨으로부터 어슬러에게 전해지면서 그녀의 온 몸으로 퍼졌다. 어슬러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버킨과 어슬러는 서로 별의 균형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들은 별의 균형의 상태를 이룩하고 자연과 동소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게 되는데 숲에서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그들의 첫 날밤을 맞이했던 것이다. 신비스러운 밤에 버킨과 어슬러는 그들의 육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의 극치를 얻을 수가 있었다.

버킨과 어슬러는 창조적 유형의 어두운 관능에 몰입함으로써 대부분의 현대 문명

인들이 잊어버린 원초적 자아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 길이 참생명의 길인 것이다. 두 사람의 원초적 결합은 밤과 암흑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암흑의 이미지는 신비로운 자연 속에 잠재하는 태초의 생명력에 대한 암시이고, 이는 머리로써가 아니고 피로써 의식하는 무의식의 암흑이다. 버킨과 어슐러가 지새운 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다른 생명과 감촉할 수 있는 계시로써만 알수 있는 신비로운 원초적 결합의 밤이었다. 이와 같이 영육의 조화에 의한 절정의 순간에 두 사람은 이제까지의 자아 투쟁과 의지의 강요에서 유발된 내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시킨다. 이제 그들은 생도 사도, 과거와 미래도, 증오와 갈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몰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버킨과 어슐러는 참사랑이 이룩한 망아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두 사람 모두 사직서를 쓰고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어느 날 버킨과 어슐러는 시장에서 의자를 샀다가 신혼부부에게 주어버린다. 이들이 의자를 포기하는 행위는 소유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소유는 현대 산업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가치임을 고려할 때, 소유의 거부는 참 존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산업주의의 본질을 거부한 이들에게 현대 산업사회에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이 좋은 곳일 수 없었다. 특히 버킨에게 영국은 가짜이고 가짜의 집합체이며 영국에서는 생산이라는 게 없고 있는 것은 오직 지저분하고 더러운 기계성 뿐인데 기계성이란 물질주의의 핵심이라고 버킨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영국을 극도로 혐오한다. 버킨과 어슐러는 이러한 영국을 떠나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을 찾아 도버 해협을 건너게 되는데 해상 어둠 속에서 미지의 낙원을 본다(p. 428).

버킨과 어슐러는 이제 궁극적인 결혼(ultimate marriage)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졌다. 버킨과 어슐러는 결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혼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하나의 길입니다」라고 어슐러가 말했다. 그것은 전 세계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지요, 버킨이 덧붙여 말하였다. 「그래요, 다른 모든 세계를 수용하는 길이지요」 어슐러가 행복하게 말했다(p. 408).

버킨과 어슐러는 정식으로 결혼한다. 버킨에게 어슐러는 부활이요, 생명이었다. 버킨과 어슐러는 결혼을 통해서 별의 균형의 상태에 이르고 생명의 근원인 원초적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이상적 인간관계를 이룩하게 된다.

버킨과 어슐러가 이상적 인간관계를 이룩하게 된 것을 생태학적으로 규명해보면 현대 기계문명에 예속되어 지배와 종속의 파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제럴드와 구드룬과는 달리 버킨과 어슐러는 현대 기계문명에 반발하고 생명력을 기반으로 하는 원초적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자연과 동소체적 관계를 이룩하게 되고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 III. 결론

현대 기계문명은 순수한 육체의 자연적인 삶을 말살하여 인간을 하나의 기계적인 단위로 만들었으며 문명 사회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원인은 근대적 산업의 발전에 의한 자연 파괴의 가속화와 생활의 기계화 및 이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로렌스는 생각했다.

로렌스는 현대 기계문명에 의하여 질식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소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인적 완전 연소의 생명력에 충만된 삶을 영위케 하려는 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진인적 완전 연소의 생명력에 충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초 의식이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로렌스는 생각했다. 물론 로렌스가 생각하는 과거로의 복귀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원시시대의 원초 의식을 현대에 되살려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생명감으로 충만된 인간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즉 라차펠이 제안한 “미래의 원시인”을 현대에 탄생시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렌스가 자각한 원초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인간의 원초 의식이란 정신 이전의 의식이며 인간 의식의 강렬한 뿌리에 해당한다. 원초 의식은 광대한 무한 즉 생명의 근원인 암흑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태초이며, 암흑의 위대한 영역인 동시에 우주가 창조된 자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미지의 암흑의 존재는 모든 생명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은 근본적인 흐름으로써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이며 본질로 우리 존재의 가장 순수한 진수라고 로렌스는 생각했다.

이러한 로렌스의 비전이 『사랑하는 여인들』에서 선명하게 반영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인들』에서 현대 기계문명과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제럴드와 구드런 그리고 허미온과 로엘케 등 이 중에서도 제럴드와 구드런의 파괴적인 사랑을 통해서 로렌스는 현대 기계문명이 가져다 준 폐해를 형상화함으로써 이를 진단하고 경고하여 인류에게 목시록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로렌스의 목시록적 비전을 조명해보면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정복적인 자연관과 이에 따른 지배와 소유의 애정관을 갖게 된 현대 서구 산업사회와 이를 대표하는 제럴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제럴드의 비극은 생명의 온기를 잃고 기계처럼 냉혹하게 되어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룩하지 못한 현대의 많은 제럴드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인류에 대한 생태학적 경고라고 할 수 있다.

로렌스는 현대문명의 고질을 명찰한 작가였으며 기계적인 현대사회에 반항하여 인간을 생명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물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로렌스의 소원



이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왜곡된 현대문명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것은 원시인의 원초 의식생활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은 생명 본능이 존재하는 전인적 완전 연소의 생활이었다. 로렌스는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감성과 생명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들』에서 로렌스의 이러한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버킨과 어슐러인데 이들은 참사랑, 참생명을 기반으로 하여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이룬다.

버킨과 어슐러는 자연친화적이며 원초의식을 지니고 있어 생명의 근원에 도달하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며 자연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오늘날의 생태위기를 초래케한 원인의 하나가 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보려는 이항대립적인 자세도 없다. 따라서 로렌스의 『사랑하는 여인들』은 생태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문학생태학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로렌스는 생태주의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paradigm)을 앞서 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옥동. (1998).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 박주식. (2001). 에고(ego)에서 에코(eco)로: 생태학적 문학이론의 정립을 위해. *미국학논집*, 33(1), 211-245.
- Burns, A. (1980). *Nature and culture in D.H. Lawrence*. New Jersey: Barenz and Noble Books.
- Daleski, A. M. (1965).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H. Lawrence*. London: Faber and Faber.
- Ebbaston, R. (1980). *Lawrence and the nature tradition*. Sussex: Harvest Press.
- Fall, W. F. (1969). The image of the wolf in chapter XXX of D. H. Lawrence's *Women in Love*. *D. H. Lawrence Review*, Vol. 2, No. 3(Fall).
- Ford, G. H. (1966). *Double measur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Lachapelle, D. (1996). *D. H. Lawrence: Future primitive*. Denton: Univ. of North Texas Press.
- Lawrence, D. H. (1963).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Vol. 1. Harry T. Moore (Ed.). New York: Viking Press.
- Lawrence, D. H. (1972). *Phoenix* Edward D. McDonald (Ed.). Harmondworth:

Penguin Books.

Lawrence, D. H. (1970). *Women in Love*. Harmondworth: Penguin Books.

Leavis, F. R. (1976). *D. H. Lawrence: Novelist*. London: Pelican Books.

Miko, S. (1971). *Toward Women in Love*. New Haven: Yale Univ. Press.

Moore, H. T. (1963). *The life and work of D. H. Lawrence*. London: Unwin Books.

Niven, A. (1978). *D. H. Lawrence: The novel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Spilka, M. (1955). *The love ethic of D. H. Lawren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엄정옥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063) 252-1464

E-mail: gr1449@hitel.net

Received in Jan. 2005

Reviewed by Feb. 2005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 2005